정권이기주의에 물든 문화정책

문화특집 — 문화대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보고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주최로 '6공화국 문화정책의 허실과 문화개혁의 방향'이란 제목하에로 화대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민예총 강당에서 열렸다.

첫날은 문예분야에서, 둘째날은 교육분야에서, 세째날은 언론방송 분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청중이 함께 토론을 벌였다.

지난 토론회는 '문화'란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토론으로 토론자들 모두가 정부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 연구와 역량의 부족으로 정책으로써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권과 자본의 문화정책에 대한 현실과, 문화분야 종사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망하는 기초가 되었다는데 이 토론회의 의의가 있었다.

세째날 토론의 한 내용인 강준만(전북대·신문방송학)교수의 '문화예술 매체로서의 언론방송의 문제점'에 관한 발제·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편집자註〉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과 방송은 다른 문화매체 또는 양식과는 달리 그 문화적 위상이 불분명하고 문화적 가치가 다른 정치경제적가치에 압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언론과 방송의 경우엔 그 문화적 위상과 가치의 인식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그 인식만이 가능할 경우 언론과 방송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해주는 기능 그것만으로도 문화매체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과 방송을 문화매체로 규정하는 이면에는 언론과 방송이 지면하는 있는 정치경제적 갈등을 피해가려는 현실도피주의 혹은 현실순응주의가 숨어 있다.

한국의 언론과 방송은 권력과 자본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 있으며 그 통제를 용케 벗어난 영역은 목적 없이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권력은 국가보다는 정권, 자본은 국민보다는 자본 그 자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새력을 팽창시키기 위한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언론과 방송의 문제가 결국 권력과 자본의 성격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글에선 '아래에서 위로' 또는 '미시에서 거시로'의 변화가 가능한 여지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언론과 방송의 고유한 문제에 국한시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언론과 방송은 시장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테에 동의한다면 언론 및 방송이 그 추세, 가치와는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또 존재해야 할 특수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과 방송의 인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 해도 언론 및 방송이 그 추세, 가치와는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또 존재해야 할 특수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과 방송의 송법이 안고 있는 부작용이다.

정부는 91년도부터 방송정책의 분표를 '선택의 자유확대'와 '표현의 기회확충'이 두고 민간참여와 자유경쟁의 원리가 방송에 도입되도록 추구해 나갈 것을 밝혔.

> 권력과 자본이 결탁된 현실에서 일어난 MBC파업

공영·민영 혼합된 제3의 제도적 대안 필요
신문·방송·잡지의 '겸영금지' 입법화 절실

기존에 경험해 왔던 종류의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추구해야 할 당위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을 의미한다.

그런 새로운 의미에서 문화정책은 흔히 '간섭을 배제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간섭을 완전히 배제한 문화정책이 가능하며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문화정책에 있어서 간섭은 필요악이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시장기능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국제적 문화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서이다. 문제는 그 간섭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이다.

언론과 방송은 조직을 매개로 하는 성격이 그 어떤 문화매체나 양식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개인기업이든 공영기업이든 완전한 자유방임상태에서 기능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서울방송의 경우에서 벌써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일반 경제영역에서의 민영화 추세와 그 기본가치가 절대적 문화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기주의에 근거한 문화정책때문이다. 예대 정권의 문화정책은 권력유지를 위한 음모를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의의 문화정책마저도 홍보기능에만 집착해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화정책의 성과는 경정책과는 달리 장기간 후에 나타나며 또 그나마 비가시적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시각은 기존의 공보처가 정권홍보를 전담하는 것을 제1의 기능으로 삼고 있으면서 동시에 언론과 방송에 관련된 정책을 주관한다는 데에 있다. 공보처를 폐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삼치된 기능을 분리하는 의미에서 언론 및 방송은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문화부가 방송을 관장한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방송체제의 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다고 관단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기존의 방송법 중 언론 및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 부작용이다.

한편 신문과 같은 활자매체는 기존의 민영방식을 고수하되 하되라도 공공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신문사업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의 가도를 달려왔으며 이는 언론의 고유한 사명을 방기하거나 훼손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라는 것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신문사간의 무한경쟁은 신문의 고유한 언론 기능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신문사의 자본논리 지배가 아무런 공공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요컨대 자본통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언론은 우리 시대의 언론을 장악하여 왜곡시키는 행위를 아주 은밀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언론계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어 언론의 자본 종속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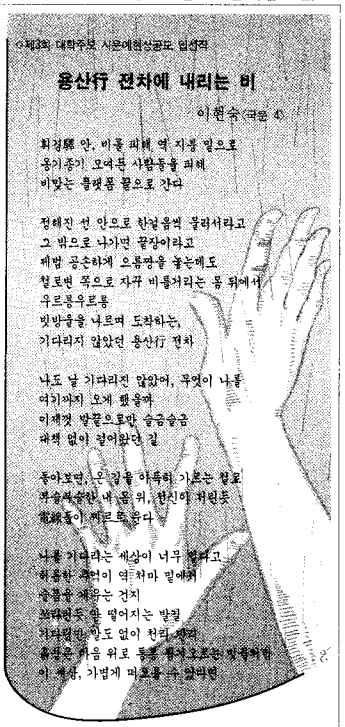
이같은 신문의 무한경쟁과 주는 언론미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언론문화를 중앙집권적이고 획일화된 문화로 변질시킴으로써 민주적 언론형성과 지역문화 창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그룹의 언론사 소유 금지 및 1개 신문 별 발행부수 제한조항을 적용하고 신문과 방송매체의 겸영은 물론 신문과 잡지의 겸영을 금지하는 입법화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 중앙일간지의 지방신문공장 설치로 인한 지방신문들의 고사위기나 중앙일간지들의 증가 및 월간매체 소유로 인한 매체간 상호 비판을 금기시하는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도 그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신문발행의 자유를 인쇄능력, 즉 자본력을 기준으로 하여 업격히 제한하고 있는 기존의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신문 및 방송기업은 개인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국민의 의식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민주적운영 질서를 근본으로 해야 하며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가 보장하는 경영진의 인사권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주요 간부급 사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추천제, 임명동의제, 또는 해임건의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언론과 방송이 단지 사회의 반영일 뿐이라고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 언론과 방송은 그 증대된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를 창조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언론과 방송은 다른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관점에서도 충분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중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힘이 지금까지도 언론과 방송에 대한 관련과 자본의 지배 문제에 대한 고민조차 돌려지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서 언론과 방송을 민주적인 문화매체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된다.

〈文責:김일형記者〉



○제3회 대학주보 시문예현상공모 입선작

용산行 전차에 내리는 비

이현숙(국문 4)

퇴직금 안, 비를 피해 역 지붕 밑으로
옹기종기 모여든 사람들을 피해
비맞는 플랫폼 끝으로 간다

정체된 선 안으로 한걸음씩 물러서라고
그 밖으로 나가면 불장이라고
폐법 공손하게 으름짱을 놓는데도
철로변 쪽으로 자꾸 비틀거리는 몸 뒤에서
우르릉우르릉
빗방울을 나르며 도착하는,
기다리지 않았던 용산行 전차

나도 날 기다리지 않았어,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이제껏 발끝으로만 슬금슬금
재미 없이 걸어왔던 길

동아보단, 은 길을 아름답다 기쁜 참로
부유하지 않은 내 몸 위, 한신이 쉬리듯
빗방울이 쏟아져 온다

나를 기다리는 세상이 너무 멀리고
허물의 죄인이 역사와 밀어져
슬픔을 제물은 건지
보잘것 없 떨어지는 발걸
가차없는 만도 없이 천리 가자
흙먼은 마음 위로 흘러 흐르고는 빗줄처럼
이 계절, 가볍게 떠오를 수 있을지

캠퍼스 문화인

무대에 오를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
—'느릅나무밑의 욕망'을 연출한 송희옥(한의본·1)군

다소 피곤한 표정의 고도국회 회장 송희옥군을 신문방송국에서 만난 것은 밤 열시. 저녁공연을 마친 후 뒷 정리를 하느라 그는 매우 바쁜 모습이었다.

한의학과에 들어온 후 전주향우회 선배의 권유로 지원한 탈의 반 연극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는 처음 들어온 후 후회도 많이 했지만 연극을 할 때만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며 연극을 계속하는 이유를 밝힌다.

송군은 1학년때 선배들이 연진 '연극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며 극월하게 자기자신을 보여주는 것, '자신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연극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생활속에서 특히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밝히는 그는 사랑하지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역할과 연기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외로움에 갈등여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한 과정들도 연극의 한 진행과정이라고 여기며 생활한다고.

그가 속해있는 고도국회는 78년 연극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지금까지 열네차례의 정기공연 을 가져왔으며 올바른 지방문화의 창달을 위해 3년에 한번씩 지방공연을 갖고 있다. 내년에는 창립15주년 기념행사로 선배들과 합동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낡은 농부, 그 둘째부인의 막내아들, 그리고 세번째부인, 농장에 대한 소유욕으로 뱃게되는 불륜의 관계, 그속에서 피어나는 진실한 사랑……이번 '느릅나무밑의 욕망'은 소유욕을 벗어난 진실한 사랑을 그려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아마추어 연기자들이 하기 힘든 키스 장면과 정사장면 등을 넣어 과감한 표현을 시도하면서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2층구조의 무대장치도 관객들의 흥미를 더해주었다. 무대장치의 2층구조 시도는 매우 어려운 일로 이번공연에서 노려의 결과를 엿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입주일에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는 그는 연출자로서 배우들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배우들도 자신의 연기가 잘 되지 않을 때 술을 마시게 된다며 연극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배우로서의 생활과 연출자로서의 생활을 해본 그에게 더 힘든 것을 무엇이냐는 박연한 질문을 하자 cast의 성격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끌어야 하는 연출이 배우보다는 더 어렵지만 주어진 의무만큼 잘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생긴다고 말한다.

신입부원들이 연극을 좋아하고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꿋꿋이 해나가는 모습에서 선배로서의 실적부담도 느끼지만 그 모습에서 힘을 얻고 기쁨 또한 크다고 한다.

"연극이란 극렬하게 자신을 표출하는 것"

그는 매년 Workshop공연과 정기공연을 가지면서 연극이 끝없는 것을 느꼈다며 아무리 좋은 연기라도 다시 보면 미숙한 점이 발견된다며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선배들 중에 연극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말하는 그는 미칠 수 있다는 그 모습에서 멋을 느낀다며 자신의 삶에서 연극을 다시 되새기고 있었다.

〈정미경記者〉

신간안내

김형수 산문집 출간

김형수 산문집 '동요하는 배는 닻을 내려라'가 삼림터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89년 '민중시·2'로 등단하여 '애국의 계절'등의 시집과 평론집, '대중을 위한 문학교실'등을 펴내고 현재 문학 계간지 '노동동'의 편집위원으로 있는 작가의 첫 산문집이다.

"역사가 흐르는다는 구속으로부터 멈찍이 떠나버리고 싶을때가 있다"는 작가의 솔직한 고백과 아울러 삶에 대한 그의 진한 애정을 느낄수 있는 작품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세계사적 격변기를 거쳐 쓴 글이 많이 보이는 이 산문집에는 '예술은 인간을 진짜가 되게 한다', '깊 길을 모르거든 오던 길을 돌아보라', '일기' 등이 실려있다.

(삼림터刊, 4천5백원)

'레닌언론저작집' 발간

사회주의 변화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보수화물결에 휩쓸려 뚜렷한 언론전망을 갖지못한 요즈음 제도권 언론의 잘못된 사상과 관행을 고치고 이땅에 진정한 민주언론을 부활하고자 하는 뜻의 책이 출간되었다.

'레닌언론저작집'(상·하)가 그 책으로서 I. O. J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의 언론총서 중 제1권 'Lenin about Press'를 번역한 이 책은 레닌이 혁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규정한 '전국적 정치신문론', '노동자신문론'등을 비롯하여 '민주언론의 역사', '언론자유의 개념', '민주언론의 편집원칙'등을 담고있다.

(말길刊, 각권 7천2백원)

'창작과 비평' 겨울호 발행

문학계간지 '창작과 비평'의 92년 겨울호가 나왔다.

조선 민중의 시각에서 왜란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는 '임진왜란, 어제와 오늘'이 임진왜란 4백주년 기념대담으로 실린 이번 호에서는 또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체적 대응을 모색한는 계기로서 '중국사회주의의 변화와 한반도', '분단체제론'을 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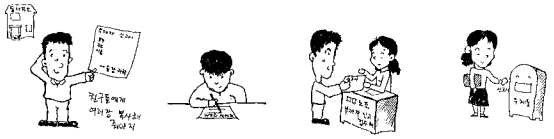
그 밖에 '분단시대의 민족문학 연구수준'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과 절박성', '80년대 북한 소설문학의 특징과 문제점'이 비판, 검토되고 있다.

문화평론으로 '5·60년대 남한문학의 민족문학적 위치'가, 문화시평으로는 '중국과 월남에 관한 내권의 영화'가 실려있다.

〈창작과 비평사刊, 5천원〉

귀찮다고,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1)부재자 신고서 작성 및 발송



①부재자신고서 수령(동사무소) ②신고서 작성 ③단체별 및 개인별 발송(주민등록지로)

2)부재자 투표방법

①주민등록지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배달됩니다. ②지정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부재자 투표를 꼭 합시다

지난 3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부재자의 투표기권이 100만표를 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00만 부재자의 참여 여부는 대통령후보의 당락을 결정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 수립은 부재자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재자란 정기간(선거인 명부에 기재되고 선거인 명부작성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난 사람으로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재자 투표는 일반투표일에 앞서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이를 위한 우편투표 용지는 12월 3~5일에 발송됩니다.

부재자 투표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구·시·군 또는 투표구선관위가 설치한 영외투표소에서 실시합니다.

단, 합정·오지 등 불가피한 경우는 기관·시설안의 별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부재자 신고일은 11월 25일까지입니다.**

공정보도 촉구를 위한

언론감시단모집

"○○일보는 국민의 신문" "○○○는 국민의 방송, 국민과 함께하는 ○○○"

한결같이 신문이나 방송이 모두 "국민의" "국민과"를 주장하지만 진정 국민의 언론이 있습니까?

이제 언론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언론의 왜곡, 굴절된 현실을 바로 잡읍시다.

모집대상 : 참여연을 바라는 시민 학생누구나

활동내용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도언론의 과행보도를 바로잡는 현실가능한 모든 실천활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언론 모니터활동, 왜곡 편파 불공정보도에 대한 항의전화, 항의방문, 대국민홍보전등

모집기간 : 수시로

일 정 : • 11월 25일경 결단식
• 이후 비디오 상영, 언론 문제에 대한 강좌 및 토론회
• 긴급한 사안이 발생시 6시간 또는 12시간이내에 모일수 있는 준비(비상연락망 구축)

문의및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6-16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전화 365-0325/6, FAX 392-5289)